

# LH, 올 아파트 6200가구 공급

광주 선운지구 등 60% 국민·공공임대  
토지 178만㎡ 포함...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에서 올 아파트 6000여 가구와 토지 178만㎡를 공급한다.

LH 광주전남본부는 15일 아파트 총 6211 가구와 토지 178만2000㎡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아파트는 총 6211 가구를 공급하는 데 가운데 59%인 3679가구는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 아파트는 광주 선운지구 1147 가구, 장흥 건설지구 318가구 등을 신규 공급하고 광주 백운2·3 지구, 광주 첨단1·2지구, 광주 수완7지구 등 8개 국민임대와 광주 백운1지구 공공임대 2214가구 등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공급한다.

분양 아파트는 광주 학2지구 794가구, 여수엑스포 1442가구, 목포 남교

204가구 등 모두 244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450가구와 함께 부도아파트 408가구를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며, 신혼부부나 소년소녀 지원을 위한 전세 임대도 810가구를 공급한다.

토지는 광주 효천2지구 공동주택 용지, 광주전남혁신도시 단독주택 용지와 상업용지 등 모두 7개 사업지구 700필지, 65만2000㎡를 신규로 공급하며, 광주 선운 공동주택지와 광주 수완 연립주택용지 등 18개 사업지구 377필지 113만㎡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있다.

LH 광주전남본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올해 토지개발에 2835억원, 건설공사에 4178억원 등 모두 74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광주·전남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유영일 LH 광주전남본부장은 “지역민들이 관심을 둔 사업조정과 관련해 광주·전남에서는 현재까지 사업 중단 또는 취소 계획은 없다”며 “다만 일부 사업의 분양여건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LH 광주·전남지역 사업계획

◇ 국민임대			
지구명	호수	지구명	호수
광주선운	1147	무안성내	45
장흥건설2	318	광주수완7	631
여수죽림	60	영암용암2	104
광주첨단1	539	광주백운2	144
광주첨단2	143	광주백운3	335

  

◇ 공공임대			
지구명	호수	지구명	호수
광주백운1	213		

  

◇ 분양			
지구명	호수	지구명	호수
광주학2	794	목포남교	204
여수엑스포	1442	광주진월 등	50

유영일 LH 광주전남본부장은 “지역민들이 관심을 둔 사업조정과 관련해 광주·전남에서는 현재까지 사업 중단 또는 취소 계획은 없다”며 “다만 일부 사업의 분양여건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탱글탱글 포도대전

광주신세계 (총괄임원 조창현) 지하1층 식품관에서는 식육종진, 피로회복에 좋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C와 D가 풍부해 갱년기 여성에게도 좋은 포도대전이 열려 주부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은행장 후보 2명 압축

송기진 현 행장 vs 남경우 KB선물 사장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자가 송기진 현 행장과 남경우 KB선물 사장 2명으로 압축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행장추천위원회는 이날 광주은행장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송기진(59)현 행장과 옛 재무부 관료 출신 남경우(60) KB선물 사장 간 경쟁 구도로 압축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차기은행장 선임에 행장후보에 포함된 이광성 회장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어 이 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송기진 행장에 대한 연임설이 유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는 당초 8명에서 서류면접을 거쳐 지난 7일 송기진 현 행장과 남경우 광주은행장 후보가 남경우 KB선물 사장, 박승희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전무, 최영하 광주은행 전 상무 등 5명으로 압축됐다.

행장후보는 조만간 차기 행장 후보자를 확정해 각 행 이사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차기 광주은행장은 오는 25일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에 열리는 광주은행 주총을 거쳐 선 임된다. /최재호기자 lion@

## 광주은행, 지지진 피해지원책 시행

수출환어음 부도유예 연장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5일 최근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 관련 피해지원책을 오는 6월말까지 시행하고 필요시에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밝혔다.

특히 이번 사상 최악 대지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샌다이시는 광주광역시와 자매결연도시이기도 해 광주은행은 피해업체 뿐 아니라 대지진 진과 관련된 외환거래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은행은 구조 목적의 일본지역 송금시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전액 면제하고 송금할 때 환율도 100%까지 우대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소재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수출환어음매입대진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징수를 면제하고 수출환어음 부도유예기간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해 준다.

수입거래처에 대해서는 지진 등으로 선적과 서류제시가 지연되어 신용장 기일이나 선적기일을 연장 요청하는 경우 기간수수료 및 조건변경 수수료 전액을 받지 않는다.

이외에도 광주은행은 수출입거래처가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줄줄이 인하

시중은행들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잇달아 인하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금리 인하를 통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주택대출 늘리기 전에 나선 반면 일부 은행은 잔액 기준 대출 확대 노력을 지속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6일부터 거래되는 6개월 변동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의 가산금리를 연 0.43%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은행 대출 금리는 코픽스와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기준금리’에 조달비용과 영업이윤, 고객 신용도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붙여 결정된다.

국민은행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급격히 줄어든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잔액 기준 대출의 가산금리는 0.1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2개월 변동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의 가산금리를 이날부터 0.10%포인트 인하해 4.90~5.72%(1년 만기)를 적용한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초 금리 변동주기에 따라 2년변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0.04%포인트 낮추고, 3년과 5년 변동 대출은 각각 0.09%포인트와 0.20%포인트 인하했다. /연필뉴스

## 지방 신규분양 지난해 4배

최근 지방 5대광역시의 미분양 물량이 대폭 감소한 데 이어 4월 지방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이 ‘해빙기’를 맞고 있다.

15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 조사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는 총 42곳 2만4377가구로 지난해 10월 이후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방 5대광역시의 신규 물량이 지난해 15577가구에서 30087가구로, 지방 중소도시는 8607가구에서 71627가구로

늘어나면서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서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과 수도권 택지지구 물량 등의 호재로 2만7785가구가 공급됐던 수도권에서는 올해 대규모 택지지구 물량이 줄면서 신규 분양이 1만3867가구로 반토막이 났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최근 지방의 미분양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부산지역 청약열기가 인근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서둘러 신규 분양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필뉴스

## 수입물가 상승률 2년만에 최고

2월 수입물가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내놓은 ‘2011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수입물가(원화기준) 상승률은 전년 동기에서는 올해 대구모 택지지구 물량 18.0% 이후 가장 컸다. 전월과 비교해도 3.1% 올랐다.

수입물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광산품과 옥수수, 천연고무, 원면 등 농림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원자재는 전년 같은 달보다 32.7% 증가했다. /연필뉴스

## “신분증 분실 신고해야 금융피해 예방”

금융감독원은 신분증을 잃어버리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금융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이 15일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해 한 은행에서 자기도 모르는 계좌가 만들어져 입출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

다는 사실을 알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계좌는 A씨가 지난 2009년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갖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인은 A씨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케이블TV에도 가입, 이용료가 A씨에게 청구되게 했다. /연필뉴스

이처럼 분실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인터넷으로 수백만~수천만원씩 대출받아가는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진기술이 발달한 데다 위모를 조금 바꾸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악용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분증 분실 즉시 가까운 동사무소나 은행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필뉴스

## ■ 세 얼 굴

### “가맹점과의 제휴 통한 특화 서비스”

이재홍 KB국민카드 광주지점장



“국내 최고 수준인 KB국민카드 서비스와 광주·전남지역에 최적화된 특화 마케팅을 융합해 회원들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과는 더불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B국민카드 광주지점 이재홍 지점장(48)은 “지난 2일 KB국민카드가 KB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7일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국민은행빌딩 9층에서 지점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지점장은 “독립법인 출범으로 영업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며 “광주지점은 광주·전남의 마케팅 거점으로 카드발급 및 대고객 서비스 등 고유업무 외에도 가맹점과의 제휴를 통한 지역밀착 마케팅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SCREEN GOLF

## 두암골프존

연중무휴 가격인하!

### 18홀 13,000원

(오전12시 티업까지 10,000원)

-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 적용합니다.
- 유료코스 이용시에는 고객님께서 2,000원을 부담합니다.
- 골프존 Real 18홀 17,000원 (추가부담 없음)

편안하고 쾌적한 최고시설 5개홀  
전타석 스윙플레이어  
윈스타석(와이드 화면) 구비

단체경기(8~10인)를 위한 OPEN형 룸  
골프채, 신발, 장 무료대여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일제외)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떨트의 느낌을 그대로...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골프연습장

만나는 순간,  
여러분께 리더의 자부심을 약속합니다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환도로쪽 70m [햇살 5층]

예약 ☎ 234-9999

# 지붕개량 금속칼라강판

단 한번 시공으로 평생지붕 걱정 끝!

‘슬레이트 지붕’ 애물단지  
전남주택 ‘석면공포’

만족 할때 - 고실 10곳 중 9곳도 건강해됨

**공장 직영**

최대형 공장에서 직거래하므로 원·부자재의 종류가 다양하며 가격이 확실하게 저렴합니다.

**공정 직거래**

**주택 개·보수**

현집, 누수, 방수 보수, 지붕 개량

**인테리어**

커피숍, 레스토랑 노래방, PC방, 식당 고급 인테리어

**APT, 주택 리모델링**

베란다 확장 욕실, 도배, 주방 거실 확장, 장판

최신형 신개발품 대농금속칼라강판은 다릅니다.

- 한번 시공으로 수명이 반 영구적이며, A/S가 신속합니다.
- 정부인정 100% K제제품만을 사용합니다.
- 공정직영이므로 고객이 원하는 크기와 색상을 맞추어 드립니다.

단 하루면 시공완료 | 주택, 지붕, 창고 | 공장, 행사, 닥트

**대농산업** DAE NONG

본사 및 공정주소  
광주시 서구 서창동 530번지

☎ 062-373-6548 · 6549  
010-8608-6548